

[국제]

“日, 범죄의 중대성 솔직히 인정해야”

미 국무부는 26일 일본 정부가 일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솔직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일제 위안부 만행과 관련한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전례없이 강력한 것으로 미 의회가 위안부 사과 결의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톱 케이스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분명히 일본이 이 문제를 계속 다루길 바라며, 저질러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솔직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이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스 부대변인은 위안부 문제에

美 국무부, 위안부 문제 책임있는 태도 촉구 “日 남북자 사건은 북·일간에 결정할 문제”

대해 사과한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을 진일보 한 것으로 본다며 “사과가 이뤄진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케이스 부대변인은 이어 위안부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일본 정부의 솔직하고 책임있는 대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이날 브리핑에서처럼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솔직하고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한 것은

유례없이 강력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존 니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일 일본 방문 도중 위안부 문제는 “개탄스런” 일이라고 지적했으나 일본과 관계 당사국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슈퍼 주일 슈퍼 대사로 16일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매년 춘을 강요당했다”며 “이는 그들이 일본군에 의해 성폭행당했음을 의미한다”고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케이스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는 아베 총리의 일본 의회 발언이 일본 관리들의 기존 언급을 뒤집어준 것이라고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닛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처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AP통신의 조지 게다 기사는 일본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남북자 사건 해결은 위안부 문제와 함께 다루어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질문을 해 논쟁을 끌었다.

케이스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2·13 합의에 따라 설치된 실무그룹들에서는 당사국들이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들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면서 “북일간의 실무그룹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할 지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세상=연합뉴스



중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

인터넷 중독자가 2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중국 베이징의 한 군대시설내 인터넷 중독자 치료센터에서 10대들이 줄지어 서 있다. 가족들에 의해 치료소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신병캠프에서처럼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AFP=연합뉴스

남·북극, 안데스 산맥, 시베리아 기후대 100년후 소멸

온난화 여파... 지구 기후대 재편성

美 위스콘신대 연구진 전망

2100년까지 남·북극과 안데스 산맥, 시베리아, 호주 남부 등의 기후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열대지역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기후가 등장하는 등 온난화로 인해 지구 기후대 재편성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전망했다.

미국 매디슨 소재 위스콘신 주립대의 존 윌리엄스 교수 등 연구진은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전망을 내놓는 한편 이에 따라 이런 기후대에 살고 있는 동식물의 멸종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작성한 기후변화 자료를 토대로 컴퓨터 모델을 만

들어 세계 각지의 기후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조사한 결과 “일부 기후들은 원래 있던 지역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아예 없어지게 되므로 이런 지역에서 살던 생물 종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코스타리카나 남아프리카 케이프 지역의 운무림 등 특정지역 생물의 멸종에 관한 우려가 제기된 적은 있으나 이처럼 특정기후 자체가 사라질 것을 예측한 연구는 처음이다.

연구진은 지구의 육지 가운데 12~39%에 새로운 기후가 등장하고 10~48%에서는 현재의 기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세기 말까지 일부 위도대에서 기온이 최고 8℃ 오를 경우 기후대

들은 적도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남북극이나 산꼭대기 기후들은 밀려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기후가 사라지면서 이미 기온이 최고로 높아진 지역에는 새로운 기후대가 형성될 것이며 특히 눈과 얼음이 녹아 햇빛 반사력이 떨어진 남극과 북극 지방은 온난화 효과가 증폭돼 기온 변화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마존이나 인도네시아의 우림을 비롯한 열대지방의 경우 정상적인 기온 변화나 강수량 변화가 원래 적기 때문에 기온이 조금만 변화해도 생태계에 예기치 못한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위싱턴포스트·블룸버그=연합뉴스

강풍 대비 전통공법 日 지진 피해 줄었다

25일 일본 중부 북쪽 해안지역 노토반도 지진은 지진 강도에 비해서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규모 6.9 정도면 내진성이 낮은 주택은 대부분 무너진다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또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의 계속 결과 노토반도 서부 이시카와현 시가마치는 945.4 gal(중력가속도 단위, 1 gal=0.01%)의 흔들림이 관측돼 1995년 한신)대지진 당시 관측된 818 gal보다 높았다.

그러나 한신대지진 당시 사망·실종자가 6천437명에 달하는 반면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는 1명에 불과했다.

물론 인명피해가 줄어든 것은 지진 발생 1분만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과 평소의 비상시 대비 대피훈련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해안 지방 특유의 주택 건축 방식이 피해를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바다에서 불어 오는 강풍과 폭설이 빈번한 이 지역의 혹독한 기후가 오히려 지진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를 했다고 분석했다. /도쿄=연합뉴스

“위안부 망언, 시모무리는 정신착란자”

정치권, 일제히 日 관방부장관 강력 성토

정치권은 27일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관방부장관의 ‘위안부 징집 부인’ 발언을 일제히 성토하면서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은 국회 대정부회의에서 “일본 시모무라 관방부장관이 일본군이 위안부를 징집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면서 일부 부모가 딸을 팔았다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관방부장관은 자신의 딸도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모무라 관방부장관을 ‘인종주의자’, ‘정신착란자’로 규정하면서 공식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

부에 대해서는 “31일 제주시 열리는 한일 외무장관 회의 때 이 같은 망언을 규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과거 홀로코스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유럽인권재판소를 세운 사례를 거론, “아시아에도 위안부 문제를 다룰 인권재판소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말로 해봤자 정치적 공방만 재연된다. 이제는 구두경고 차원에서 대응할 게 아니라 정부가 외교적 차원의 대책을 모색할 때”라며 정면 대응을 주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어려우면 자식인 딸까지 파는 것이 일본의 양식인지 묻고 싶다”면서 “단 하루 일정이라도 국회를 열어 일본의 이 같은 망언을 규탄하고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할 수 있기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형락 대변인은 “시모무라 관방부장관이 부모가 딸을 위안부로 팔았거나 일본군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아베 정부가 종군 위안부 문제에 전혀 책임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측의 이러한 망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



환경 파괴 주범 슈퍼 두꺼비

호주의 개구리보호단체인 프로그워치의 한 회원이 26일(현지 시각) 북부지역 다윈 인근에서 생포한 대형 두꺼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두꺼비는 길이 20.5cm, 몸무게 840g로, 이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BDA 송금문제 논의 중·미 양자접촉 가져

BDA 북한 동결자금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미국 재무부 대표단이 북한측과 양자 접촉을 가졌다고 몰리 밀러와이즈 미 재무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미 재무부 부차관보 일행이 어젯밤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회의를 했다”면서 “북한대사관 당국자들은 제6차 6자회담 개막일 당시 미국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세이=연합뉴스

공기 중 미생물도 에너지源

영국의 한 화학자가 공기 중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전기를 불꽃이 저장하는 데 성공, 장차 우리 주변의 공기를 재생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프레저 암스트롱 교수는 26일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화학협회 봄 회의에서

자신이 만든 미생물 전기 저장장치를 공개했다.

미생물이 공기 중의 수소를 소비할 때 생기는 전기를 저장하는 이 장치는 아직까지는 손목시계를 움직일 정도로 불과해 암스트롱 교수는 따르면 “첨단 항공기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를 비교

하는 격”이지만 수소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암스트롱 교수는 미생물들이 손목시계 이상의 전자기기를 움직일 만큼 전력을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수소 생산 메커니즘을 발견한다면 수소를 이용한 전력생산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카고블룸버그=연합뉴스

자동차 기름값 매월 103~280만원 절약!!

디엠에스원 : 자동차 기름값 50% 절약!! 410마력 대형버스 디엠에스원 적용전 3.5km/L!! 적용후 최고연비 7.2km/L!!

기름값 50%절약 기술자료

디엠에스원 엔진은 100% 천연가스 연료로 작동하며, 기존 엔진에 비해 50% 이상 연비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엔진 내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여 엔진 성능을 유지시켜줍니다.

기름값 50%절약!! 연비향상 100%!! 엔진성능개선!!

디엠에스원 엔진은 100% 천연가스 연료로 작동하며, 기존 엔진에 비해 50% 이상 연비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엔진 내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여 엔진 성능을 유지시켜줍니다.

디엠에스원 엔진의 장점

- 연비향상 100%
- 엔진성능개선
- 환경친화적
- 유지보수 간편

문의처: 서울 10-04443810, 부산 10-05910438

www.dmsw.com